

호시노재심 뉴스 182 후 2012년 7월 15일 발행



반원전 20만명의 분노와 일체에서 전국총회
전증거공개로 이의심(審) 승리에



180 명이 도쿄(東京) 고등 법원에 분노의 데모 (7월 1일 히비야(日比谷)-간자)

발행 호시노씨를 되찾자! 전국재심연락회의

연락처 〒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港区) 신바시(新橋) 2-8-16 이시다(石田)빌딩 4층
2-8-16

Sinbashi, Minato-ku, tokyo, IshidaBldg4F

TEL 03-3591-8224 FAX 03-3591-8226

e-mail : qq8ucd9@dream.ocn.jp URL <http://fhoshino.u.cnet-ta.ne.jp/>

2012년 전국총회에서 신방침 확립

모든 증거 개시 대운동을 싸우자



전증거개시를 결의하는 94 명의 참가자

2012년 전국총회는 전날밤에 20만명의 데모대가 수상관저를 포위해 원전 재가동 반대 노다정권을 무너트려라 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개최해 "호시노씨를 되찾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약동감을 가지고 쟁취했습니다. 전국에서 집결한 94명의 참가자는 3.30 기각 결정에 대한 분노를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씨를 되찾는 힘으로 바꾸는 열렬한 토론을 거쳐 모든 증거 개시의 대운동을 만들어 내자 라는 신방침을 세웠습니다. 노동자 인민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나라는 이상하다"고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멈추면 좋다는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의 원전사고가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오오이(大飯)원전의 재가동을 강행하는것은 용서할 수 없다. 비정규직의 청년은 소비세가 크게 오르게 되어 이제 살 수 없다. 이나라는 무엇인가. 노다(野田)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노가 기복이 되어 솟구치고 있습니다. 20만 30만명이 실제로 국회를 포위하는 정세에 와있는 중에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타파하는 국철 전국운동과 한몸이 되어 진지하게 호시노씨를 되찾는 싸움이 시작된것입니다. 그 방침이 모든 증거 개시의 대운동입니다. 이것을 전국에서 온힘을 다해서 하자. 새로운 싸움에 진출하자. 그 결의는 뜨거운 마음이되어 7월 1일의 고등재판소 포위데모로서 나타났습니다. 호시노씨 무죄의 증거는 검찰관이 몰래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관은 날조하기 좋은 증거만을 제출하고 그 외의 다른 증거는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호시노씨는 37년간이나 옥에 갇혀있는것입니다. 가족과 재심변호단과 공동대표가 "모든 증거 개시,재심개시를 요구하는 서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24개의 모임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 쫓기하면 모든 사회를 뒤흔드는 운동을 반드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직장,학원,거리에서 서명을 모으자. 싸우면서 전국의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자. 또한 전국에 새로운 구하는 모임을 연달아 만들어 나갑시다. 도쿄 고등재판소에 대한 파상공격을 반복해 모든 증거 개시,재심의 개시를 쟁취하자. 7월 31일 12시 도쿄 고등재판소앞 거리선전에 집결하자.

180명이 도쿄 고등재판소 포위데모

7.1 도쿄 고등재판소 포위데모는 히비야(日比谷)공원에 모인 180명의 슈퍼히콜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일처음 호시노 아키코(星野 暁子)씨가 호소해 전국 노동자 교류센터 국철 치바(千葉)와

미토(水戸)동력차

노동조합 산리즈카(三里塚)반대동맹 전국 학생 자치회 총연합이 연대의 인사를 했습니다.
토쿠시마(徳島)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니이가타(新潟) 오오사카(大阪) 오카야마(岡山)의 모임이 발언하고
타이라 오사무(平良 修)씨가 고등재판소와 고등검찰청을 탄핵하고 출발했습니다.

"호시노씨는 무죄다" "기각결정 탄핵" "모든 증거를 개시하라"라는 슈프레히콜이 도쿄 고등재판소와
도쿄 고등검찰청을 찢렸습니다. 경제 산업성(經濟 産業省)앞의 반 원전 텐트와 서로 응원을 주고 받고
일요일로 북적거리는 도심에서 호시노씨의 해방과 원전 재가동 저지를 호소했습니다.

2.5 토쿠시마 형무소 포위데모의 성공 그에 대한 보복으로 면회거부 먹칠등과 3.30 기각결정이라는 커다란
반격에 대해 우리들은 모든 증거 개시 운동에 진출합니다. 이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호시노씨를 되찾자.

공동대표의 인사

소용돌이치는 기지반대 원전반대투쟁과 같이

토무라 히로미(戸村 裕美)



3월 30일의 기각결정에 대해 이미 변호단을 선두로 이의신청의 싸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임도 증거의 전면개시를 향해 새로운 싸움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작년의
전국총회에서 나온 후미야키씨의 "앞으로 3년안으로 나온다"라는 뜨거운 메시지를 바탕으로
운동에 몰두해 왔습니다. 서명활동 거리활동 그리고 2월 5일의 토쿠시마형무소 포위 투쟁이 있었습니다.
전국 노조 교류센터의 호응에 응해 우리들도 전력으로 싸워왔습니다. 투쿠시마에 집결했을때 우리들은
형무소벽 안쪽에 있는 후미야키씨와 뜻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마음을 다시 한번 되살리며
재심을 향해 운동에 몰두하고자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의 상황은 어떨까요. 기지반대 원전반대의 열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상관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후미야키씨는 핵반대 기지반대의 싸움에 일어나 부당한 장기복역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호시노씨를 되찾기 위해 지금 소용돌이 치는 기지반대 원전반대의 열과 함께 재심 실현의 싸움을
일으켜 나갑시다. 이 이틀간의 전국총회로서 호시노 후미야키(星野 文昭)씨의 재심 실현을 향한
싸움을 우리들의 결의로 하여금 매진해 가고자 합니다.

가장 흉악한 사법에게 싸움을 건다

카노우 미츠오(狩野 満男)



작년의 토론을 근거로두고 자신을 해방시켜 호시노씨의 싸움과 하나가되어 그 정세 속으로 들어간다 정말로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정세를 쥐고 오늘있을 이틀째의 토론에 들어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총회에서는 변호단 측으로부터 아주 값어치 있는 정세를 응시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법권력은 국가권력의 마지막 보루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원전을 둘러싼 사법의 책임이 지금 명백해졌다 그런데 사법은 갑자기 정색하고 나섰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호시노투쟁이 이것과 얼맞는것 같다 호시노투쟁이야말로 국가와 양립할 수 없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라 하고있다. 무엇보다도 호시노씨가 옥중에서 여러가지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 1mm라도 타협하지 않는 이 힘입니다. 이것에 우리들은 지탱해왔다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들은 이 정세 속에서 가장 흉악한 사법=권력의 마지막 보루와 정말 싸운다. 싸워서 이긴다는것을 확신을 가지고 다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체를 견인하는 것이 됩니다. 노동운동의 재생이 부루주아지와의 대결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힘을 발휘한다 그러한 구성이 있으니까요 이 싸움이 호시노투쟁과도 일치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싸워나갑시다.

모든 증거 개시를 위해 온갖 노력을

타이라 오사무(平良 修)



매우 내용이 풍부한 극적인 장면이 많이 포함된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기관지에서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하자면 국가권력에 의한 지배, 신자유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해 자기해방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 흐름과 함께 호시노운동의 기세를 가속해 자신을 해방 시켜 호시노씨와 같이 비약하자. 모든 증거의 개시를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하자 라는것이

총회의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마음이 넘치는 총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좋은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것이 얼마나 멋진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쿠시마 면회일기

"누구나가 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산다"



호시노 아키코(星野 暎子)

6월 12일 비오는날의 면회였다. 후미아키는 만나자마자 내가 입고 있는 오렌지계통의 옷을 보고 "화려하지도 않고 수수하지도 않고 어울리네"라며 기쁘듯이 말했다. "머리 잘랐어?" "마침 오늘 이발하는 날이었어" "오피스길이야?" "전에 뽀뽀 짤랐더니 아키코한테 혼나서 말아야. 오피스로 자르는 사람은 적어" 후미아키의 웃는 얼굴은 상쾌했다. 다른생각이 전혀 없는 얼굴이었다. 나하고 만나서 기쁜 것만이 아니다.

후미아키의 삶 자체가 느껴지는 웃는 얼굴이다. "6월 10일의 집회 좋았어. 작년보다 늘어서 1800명. 다나카(田中)위원장의 발언 좋았어" "요전에 야오키타(八尾北)의료 센터하고 학생의 무죄판결이 나와 이긴 사례가 있다는것이 있어서 말이야" 고빈다씨의 재심 개시가 결정하는 날 고등재판소에 갔다왔기에 그 보고를 하고 재심 개시를 들어서 기뻐했다.

후미아키는 언제나 활력이 넘치네

6월 13일 맑음. "그림은 어땠어?"라는 후미아키. "집으로 가져갔어. 좋은 그림이야". 호수에 나무들이

비쳐있을 홋카이도(北海道)비에이(美瑛)의 그림이다. "조금 이른 결혼 기념일에 아키코에게"라고 제목에 써있었다. "9월 17일은 아직인데 어째서 결혼 기념일이야?"라고 물었더니 "이런곳을 결혼기념일에 아키코와 함께 걸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꼭 할거야"라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후미아키가 보내준 모두로부터의 편지와 엽서를 전부 읽은것을 전했다. "최근에 오는것은 마음이 담긴것이 많아. 2.5 이후 편지도 엽서도 늘었어"라는 후미아키. "센다이(仙台)의 회화전을 보러 갔었는데 전시의 방법도 너무 좋았어"라고 이야기 했더니 후미아키는 "전단화도 좋아 피재지의 사람들을 그린 그림과

아키코를 그린 그림이 실려있어. 전단만으로 사람을 획득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회화전은 보통 우리들이 접할 수 없는 사람들과 만나게 해준다"라고 말했다. "면회할때 후미아키는 언제나 활력이 넘치는데 어째서 언제나 그렇게 활력이 넘치는 거야?"라고 물어봤다.

"가끔 본래 컨디션이 아닐때도 있지만 언제나 이래. 동틀 무렵 꾸벅꾸벅하면서 언제나 생각해.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제일 소중한가. 인간은 누구나가 사람으로서 멋진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 사람으로서 사는 기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야하는데 지금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다.

누구나가 사람으로서 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산다. 거기서 승부한다. 아키코와 함께 사는 나의 자세도 그렇다. 그래서 언제나 활기찬 것이야"라고 후미아키는 말하며 이틀째의 면회를 마쳤다.

"앞으로 2-3년" 기본은 같다

6월 14일 맑음. 이날은 오전의 면회였다. "운동시간 있었어. 마침 런닝을 하고 있어서 땀을 흘리고 있던 중이야". 하루 30분의 운동시간 밖에서 할 수 있을 때는 거의 런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번 오전.오후 15분씩 안에서 할때는 대부분 탁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디션은 좋아. 부스럼도 스테로이드제를 바르고 있지만 따듯해진 것고 있고 그래서 좋아지고 있어. 혈압도 진정되었어. 심장도 아프지 않아"라고 말했다. "늑간 신경통 이였을지도 모르네"라고 내가 말했더니 "그렇지도 몰라" "왜 내가 건강하냐 라는건데 아키코가 있어줘서야. 거기에서 아카코를 소중히 여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자신의 사는 방식도 정하고 있어"라는 후미아키. 총회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니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는것에 대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무기징역형을 받고있어. 무죄다 라는것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고 있어. 그것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확실하게 해서 어둠을 없애고 6월 30일 7월 1일의 총회는 총궐기 집회로서 쟁취하고 싶다. "앞으로 2-3년"은 조금 연기될지도 모르지만 기본은 똑같이 앞으로 2-3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후미아키는 말하며 삼일째의 면회를 마쳤다.